Macro

IMF,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 하향

Economist 이정훈, CFA
jhoon.lee@daishin.com

- IMF 2026 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 3.3% → 3.1%로 하향 조정
- 향후 수 주내 전쟁 종료 및 올해 중반 수출/생산 차질 정상화를 기본 가정
- 한국 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호조 힘입어 IMF 전망치(1.9%) 소폭 상회 전망

상향하고 싶었으나 하향해버린 성장률 전망

IMF 는 4 월 경제전망에서 2026 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3.1%로 –0.2%p 하향 조정했다. 글로벌 성장률 3.1%는 코로나가 있었던 2020 년을 제외하면 2019 년 3.0% 이후 최저치이다. IMF 는 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 전망치는 3.4%로, 오히려 1 월 대비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전쟁 발발로 되려 하향 조정했다.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4.4%로, 역시 1 월(3.8%)과 사전 전망치(3.9%) 대비 상향되었다.

국가별로는 미국 성장률은 2.3%로 –0.1%p 하향되었고 유로존(–0.2%p)과 중국(–0.1%p)도 하향되었다. 한국은 1.9%로 유지되었는데, 수출 호조와 정부 추경 효과가 감안되었다.

향후 수 주 내 전쟁 종료가 기본 가정

IMF 의 이번 전망은 이란 전쟁이 향후 수 주 내 마무리되고 생산/수출 차질이 올해 중반 정상화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했다. 그 외 비관적/심각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, 모두 전쟁의 지속 기간 및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글로벌 충격이 심화되는 것이 핵심이다.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유가를 82 달러,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100 달러를 가정했다. 기본 시나리오를 감안하면, 국제유가가 5 월 이후 연말까지 평균 80 달러 수준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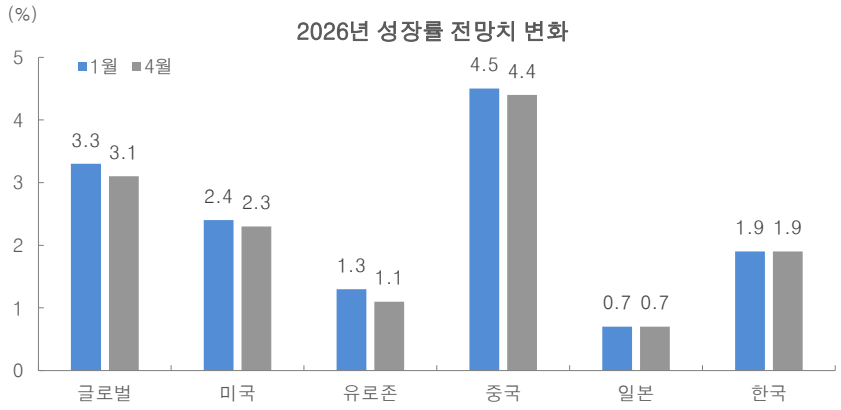
비관적/심각 시나리오 하에서 글로벌 성장률은 각각 2.5%, 2.0%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. IMF 가 제시하는 글로벌 리세션 기준이 2.0%이므로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리세션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. 다만 IMF 의 경제 전망은 주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사전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수는 기본 전망과 비관적 시나리오 사이라고 볼 수 있다.

아직 한국 전망 낙관하나,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

IMF 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.9%, 물가상승률은 2.5%이다. 당사 전망은 성장률 2.0%, 물가상승률 2.6%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 모두 IMF 전망치보다 약간 높다. 당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및 나프타 수입 차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에 근거해 한국 경제를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. 1 분기 GDP 도 전기 대비 1% 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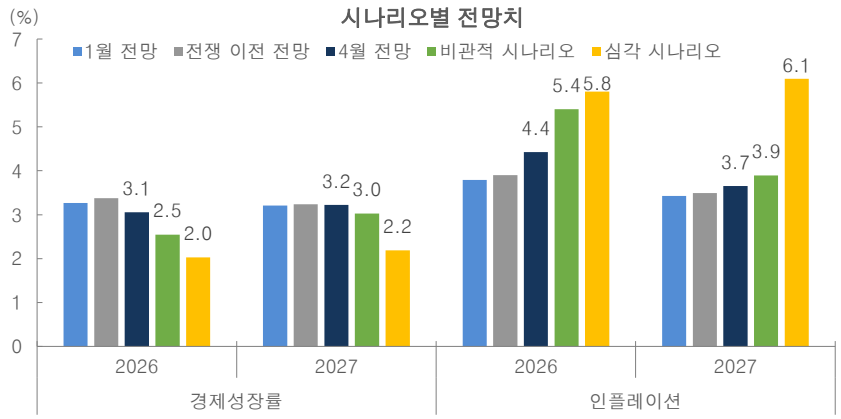
사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수치 보다는 방향성이다. 1)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 차질 우려가 심각해지는 것과, 2) 유럽이 여름철 수요를 대비해 가스 재고를 채워야하는 두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호르무즈 통행이 정상화되는 것이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. 이를 감안하면 5 월 초순 정도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.

그림 1. IMF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 대부분 하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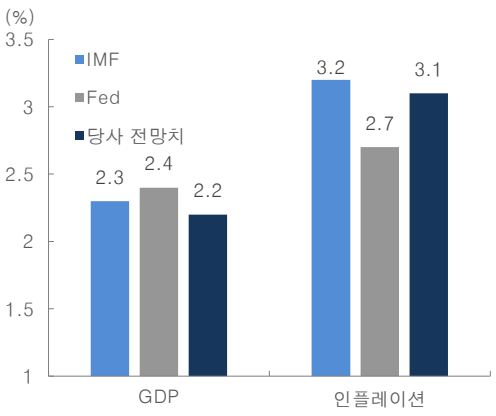
자료: IMF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2.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글로벌 성장률 2.5%로 둔화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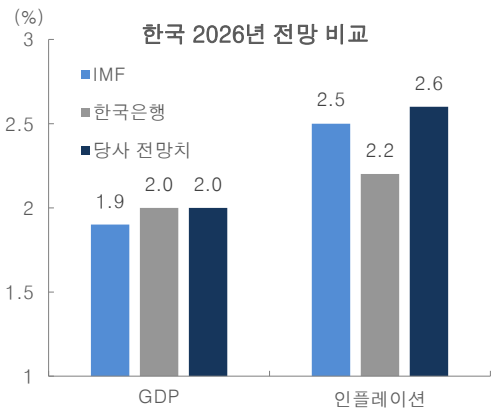
자료: IMF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주: 국제유가는 기본/비관/심각 시나리오에서 각각 $82, $100, $110~125 가정
유럽/아시아 가스 가격은 비관/심각 시나리오에서 각각 전년비 160%, 200% 상승 가정

그림 3. 2026 년 미국 경제 전망 비교



자료: IMF, FRB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주: 연준 전망치는 4분기 기준, 인플레이션은 PCE물가 기준

그림 4. 2026 년 한국 경제 전망 비교



자료: IMF, 한국은행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주: 한국은행 전망치는 올해 2월 기준. 5월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하향, 인플레이션 상향 조정 예상

[Compliance Notice]

금융투자업규정 4-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

(담당자:이정훈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